

7. 유행어 청소년 문제

THE YOUTH PROBLEM : THE POPULAR TOPIC

청소년 문제라는 소리는 요즈음 너무나 귀에 익게 들어서 그저 청소년 하면 문제요, 문제하면 청소년이 되어버린 느낌이다. 청소년 문제는 무슨 약방의 감초 같아서 한인 회장 선거에도 들먹, 교회협의회장 선거에도 들먹, 심지어 이민 교회 목사님 치고 청소년 문제 가지고 한번쯤 설교 안 하신 분이 없고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민사회에 소위 "유지"가 되려면 청소년 문제를 운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중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청소년 문제의 "전문가"들께서 청소년 문제와 청소년 범죄도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 문제라고 제목을 붙여놓고 청소년 범죄 얘기를 하는 게 비밀비재하고, 혹은 청소년 범죄라고 하여 놓고는 청소년 문제를 얘기하는 적도 적지 않다.

청소년 문제가 간단하게 논의될 수는 없지만 간단히 개괄이라도 살펴보면 좋겠다.

첫째, 평범한 의미에서 청소년 범죄와 문제는 구분되어야 한다. 청소년 범죄는 형사상 저촉이라는 행위가 법적 미성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 문제는 좀 더 복잡한 문제이다. 이것은 현대라고 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표면화된 문제로, 이 문제는 마가렛 미드의 'Coming of Age in Samoa'라는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다. 현대 이전에는 아이도 어른도 아닌 이 청소년이라고 하는 어정쩡한 스테이지의 신분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졌고 또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거의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법에 의해서 사회에 명시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한국도 육체적으로는 성장하였어도 머리는 올리지 못한 채로 있었으며 머리를 상투 틀지 못하면 공식적인 주거나 기방 출입은 금지되어 있었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교복이라는 것이 있어서 다방 출입이나 영화관람 등의 어른에 속한 영역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대화"와 함께 아이와 어른의 벽이 무너지면서 사회·정치·경제·정신적으로는 아이요, 문화·육체적으로는 어른인 청소년들의 아이덴티티는 그 누구도 정의 내려 줄 수 없는 갈팡질팡의 문제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예를 들면 보통 13세가 지나면 대개 육체적으로 성인이 되는데(애를 낳을 수 있게 되는데) 사회, 경제, 정신적으로는 이에 대한 책임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게 된다. 이러한 자연적 욕구와 사회, 정신적 제한 사이에서의 갈등이 청소년 문제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한인 이민사회에 있어서 청소년 범죄와 청소년 문제, 두 가지 다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지만 시급한 쪽은 문제 쪽인 것 같다. 왜냐하면, 한인 이민 청소년 범죄율은 타민족 청소년

범죄율보다는 낮은 상태이므로 범 교포적으로 적신호로 느낄 필요는 없고, 전문가 혹은 담당자들의 노력에 대한 지원의 차원에서의 노력이 더 효과적이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청소년 문제의 경우에는 이것이 소수민족 문제와 이민의 문제와 결부되어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직접·간접적인 ‘공범’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첨부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청소년 문제가 그저 문제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갈등을 거쳐서 인간은 자기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으며 보다 책임적인 존재로 성숙하여 가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환난(문제)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5:3-4)라고 가르치고 있다. 청소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창조적이고 긍정적 인간 형성의 기회로 사용하느냐가 문제이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의 이민 청소년 문제에 대해 지극히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문제 속에 우리가 창조적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들어있는 것이다. 함께 기도하며 말씀에서 그 대안을 찾을 때 우리의 내일은 소망으로 충만할 것이다.

8. 이민청소년문제 그 특수성

THE PARTICULARITY OF THE KOREAN YOUTH

청소년의 문제에는 보편성(universal)과 특수성(particular)의 두 가지 면이 있음을 우리는 보았다. 그 보편성은 어른과 아이 사이에서 육체·문화적으로는 성년이요 정치·경제·사회적으로는 미성년인 갈등에서 빚어지는 현대적 현상임을 나누었다. 이번에는 한인 이민생활 아래에서의 특수성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청소년 문제의 특수성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들의 자아성(Identity) 속에 한국과 미국이라는 두 개의 세계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두 개의 상충되는 가치관과 문화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단일문화권(monoculture)속에서 자라나신 부모님들의 세대는 이 문화적 갈등을 상상하기가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므로 몇 개의 예를 들어보겠다.

대학생 사역 때에 매년 나는 몇 개의 대학생 수련회를 인도할 기회를 갖는데, 그때마다 꼭 한인이민 청소년 자아문제(Korean-American Identity)에 관한 세미나를 갖는다. 세미나에 참여하는 여학생들을 통한 설문에 따르면 80% 넘는 학생들이 자신의 청소년기를 ‘죽어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로 회고했다. 학생들은 청소년기의 자신의 이미지(Image)를 "저주 받은 존재" "괴물 같은 존재"등의 극심한 말로 묘사를 했는데 그 이유는 청소년기는 주요 자신의 육체를 통하여 자아의식이 개발되는 시기인데 미국사회가 제시하는 백인 중심적 미의 표준이 자신의 육체와는 전혀 반대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미는 다리가 길고 상체가 짧아야 하고, 코가 오뎅하고 눈이 커야하며, 금발에 푸른 눈 등인데 한국 여학생들의 체위와는 전부가 반대인 것이다. 부모님들께서 여드름 한 개로 잠을 못 이루고 뒤척여 본 적이 있을 것이니 그때를 돌이켜 보시면 우리 청소년들의 고민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상상하실 수 있을 것이다. 실지로 설문에 답한 여학생들의 86%가 자살을 생각했었고, 72%가 자살의 구체적 방법을 모색했었고, 41%의 학생이 자살을 실지로 시도했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자살을 시도했던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부모님이 전혀 알지 못 한 채 지나쳤다고 하는 것이다.

수년전 브루클린의 한 교회에서 부모님을 위한 세미나 중에 13살짜리와 15살짜리 여학생 두 명이 저를 찾아와서 한 첫번째 질문이 "성형수술이 죄입니까?" 하는 것이었으며, 제가 인도했던 중고등부 수련회마다 종종 듣는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다. 청소년의 갈등은 물론 육체적인 것만은 아니다. 집에 돌아오면 한국문화요 밖에 나가면 미국문화인 사회·문화적 갈등은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더욱 심각한 것이다.

몇 년 전 LA의 라이온스 클럽 주최의 웅변대회에서 한국 여학생이 우승을 했는데 그 웅변의 클라이막스는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미국에서도 나는 내가 완전히 이곳 사람이 아닌 것을 느끼며, 한국에 돌아갈지라도 나는 내가 이방인인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하는 대목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시즌이면 수석 졸업하는 한인 학생 수가 상당한데 대학 졸업 시기엔 과에서 수석한 한인학생도 보기가 힘든 주된 이유를 나는 이 문화적 갈등이라고 본다. 고등학교까지는 사회적 관심없이 공부에만 전념했지만 대학부터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진로를 생각하게 되며, 이 질문은 궁극적으로 나는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낳게 하며, 대답이 힘든 이 질문은 청소년들 속에 종종(만약 거의 모두가 아니라면) 도피의식으로 발전된다. 이것은 나의 이론이 아니고 그간의 청소년들과의 접촉에서 얻은 경험적 결론이다.

그러면 '자녀교육을 위한 이민' 이라는 우리 한인 이민은 잘못된 것인가? 하루 속히 돌아가는 것만이 해결책인가? 그것은 아니다. 사람 사는 모든 곳에는 문제가 있다. 문제는 그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하느냐 못하느냐에 있는 것이지 문제를 피하는 것은 대책이 못된다. 나의 의견으로 역 이민은 자녀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우리의 이민 청소년들은 참으로 창조적인 위치에 와 있으며, 세계적 리더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20세기 최고의 역사가인 옥스포드의 토인비는 역사는 주변 인간들(outsiders)에 의해 개혁되어져 왔고 발전되어졌다고 그의 유명한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주장하였다. 실지로 타문화권 속에서 이민자로 살 수 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그 어느 민족보다 많이 수상하였으며, 그들의 역사위의 영향성은 "세계 40억의 인구중 10억은 예수를 따르고 (그리스도인들), 10억은 칼 막스를 따르며(공산주의자들), 10억은 프로이드를 따르고 (무신론자들), 10억은 아인슈타인을 따른다(과학신봉자들)"는 한마디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물음을 물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으며, 이 물음이야말로 자신과 역사의 흐름을 깨달아 삶의 의미와 사명을 밝히게 하는 출발점이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용기있게 대면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질문을 대면하여 스스로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찾을 수 있는 준비를 시켜야 한다. 그 준비는 우리 속에 포함된 이중문화성에 대한 교육으로 첫째 신앙교육, 둘째 뿌리교육, 셋째 비전교육을 시켜야 하며, 그 내용은 교회비전 부분에서 이미 나누었다.

9. 이민청소년 어떻게 기르나

어떻게 기르느냐 하는 질문에 나의 대답은 간단하다. "이때까지 길러 오신 대로 기르십시오"이다. 현대에 와서 심리학의 발달로 탁상머리에서 책으로만 공부한 사람들이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실험 몇 개 해 본 후에 자녀는 이렇게 길러라 저렇게 길러라,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하라고 법석이고, 그 책들이 그 사람들을 모두 돈방석 위에 앉혀 주었지만 나는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그 첫째 이유는 심리학을 가장 신봉하고 열 심히 배운 나라가 미국인데, 그 자녀교육의 결과가 오늘날 미국사회이다. 부모 공경이란 아예 사라진 개념이고, 홍익인간이란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고, 자기중심적인 향락과 무관심, 무책임이 덕이 되어버린, 죄송스럽지만 솔직히 표현하면 '시궁창' 문화가 그 결 결과이다.

둘째는 심리학이 주로 하는 말이 어릴 때는 이렇게 하면 커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는 식의 기계적 인식(mechanical view)인데,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원인과 결과가 직선적으로 연결되는 일차원적 혹은 평면적 존재가 아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불우하게 자란 사람도 극기하여 훌륭해질 수도 있고, 넉넉한 환경에서 잘 교육 받았어도 인간 노릇 못하는 수가 허다하다.

나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을 믿는다. 그들을 어떻게 기르던지 나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된 것이다. 부모와 자녀의 삶에 있어서 자녀에게 전해지는 것은 부모가 '어떻게'하였느냐 하는 결과가 아니라 '왜'하였느냐 하는 동기인 것이다. 무엇을 하던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선을 낳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그 사랑에 이것을 좀 포함하여 주십사 적고 싶은 것이다. 그 포함되어야 할 것은 지난번에 적은 바와 같이 신앙교육, 뿌리교육, 비전교육의 세 가지이다.

첫째로 신앙교육을 주장하는 것은 내게 목사라고 하는 직함이 걸려 있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수천 개의 소수 그룹들이(minority groups) 존재되어 왔으나 거의 모두가 역사에서 멸절 아니면 자취없는 동화의 과정을 통해 사라졌으나 두개의 그룹만이 특이한 결과를 낳았다. 그 두개의 그룹은 유대인과 초대기독교인 들로서 둘 다 그 어느 소수민족보다도 더 심하게 핍박받은 그룹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 하게도 가장 심하게 박해 받은 이 두 그룹이 모두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역사를 인도(Lead)하는 그룹이 되었다. 유대인 없이 현대 문명도 생각할 수 없고 기독교 없이 세계사를 논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 이 두 그룹은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세계를 정복하였는가? 그 답은 신앙이다. 소수 그룹이 정치·경제·문화·사회적으로만 자기 자신을 이해하면 그 어떤 곳에서도 다수 그룹(majority)을 능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절대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복된 소식은 인간은 결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혹은 문화적 동물의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초월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개인 또는 한 그룹의 정치·경제·문화·사회성이 어떠하던지 그의 제한성에 예속되지 아니하고 초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것이다.

성서는 "너희가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라고 말씀하신다. 진리 자체 이신 예수는 모든 제한성(궁극적 제한인 죽음에서 까지) 자유하신 첫 열매이신 것이다. 이 초월성은 신앙 없이는 절대로 고백될 수 없다. 유대인과 초대 기독교인 모두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고백이 그들의 불리하게 제한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초월시킨 동력임을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 그것만이 우리의 제한성과 불합리성을 초월, 창조적, 지도적 인간으로의 승화의 비결임을 알아야 한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감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내가 있는 나의 뿌리에 감사하며 (뿌리교육). 또한 현재의 나 된 상황을 기뻐하는 것이다(비전교육). 특별히 우리 한인 이민은 이 뿌리교육에 실패 또는 등한시 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 민족의 열과 자랑스러운 문화와 긍정적 역사관을 심기보다는 식민지 사관의 영향으로 상식이하의 부정적 민족의 자아관(ethnic self-image)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심어왔다. "한국 사람은 못치지 못한다.", "꼭 남의 가게 앞에다 가게를 연다", "엽전" 등등의 자아관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심어왔다.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약점을 마치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서슴지 않고 말해왔다. 심지어 교포 언론들이 이런 문제에 앞장서는 듯 할 때에는 참으로 애석함을 느낀다. 부정적 자아관 위에 긍정적·창조적 삶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끝으로 우리가 사는 미국사회를 바로 가르쳐야 한다. 피상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각종 사회운동들 (YWCA, BOY/GIRL Scout, Young for America)에 참여시키며 각종 학교 서클(운동부분, 취미부분, 학술부분, 특히 학생자치회)에 참여를 시켜 보고 경험하고 깨닫게 하여야 한다. 한인과 미국사회에 대한 각종 세미나 등에 참여하거나 자료와 접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너무 피상적으로 적은 것 같아 마음이 개운치 못하지만, "나를 아는 것"이란 결국 나의 뿌리와 나의 현재를 알고 깨달아 그 바탕위에 초월의 비전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교육은 가정(family)과 교회(church)와 이민사회(communitiy)의 공동과제이나 아직 한인 가정은 이민 역사적으로 안정된 시점에 있지 아니하며, 한인회 등 교포 단체들이 이런 전문적 문제를 다룰 수 있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므로 이민교회가 각성하여 이러한 사역 사역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민교회는 할 일이 무거운 교회다. 고로 행복한 교회다.